

이라크전쟁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선교적 전망

- 최바울 선교사 / 2003. 4. 11 -

오늘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의미와 중동선교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유일 초 강국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팩스 아메리카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신국제질서 재편인가? 아니면 미국의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고 중동석유 장악을 위한 석유사업가 부시 가문이 주도하는 석유전쟁인가?

어린이들은 이 전쟁이 신앙심이 두터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이 강행하는 이슬람에 대한 십자군 전쟁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전쟁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삭과 이스마엘 후예들의 고질적인 종교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기독교인들의 절대 다수는 이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들과 국제 NGO를 주도하는 지식인들과 제3세계 지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미국의 불법적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사이에 커다란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1991년 이전에는 미소 양대 대립체제가 오랫동안 구축되면서 세계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돌연 해체되면서 미국은 유일한 초일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국제상황에 걸맞는 신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신 국제질서 재편은 이미 100년 전부터 오랫동안 꿈꾸어온 미국의 세계비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질서 있고 통일된 세계구축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WTO체제출범을 통한 세계 단일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한 것은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개발은 경쟁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등 모든 개체가 전 지구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무한히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적 자유경쟁체제 구축만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되게 세계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통한 안전보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적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라 부릅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장악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보편주의입니다.

하나의 보편적 가치가 세계를 지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끝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 이질적인 다양한 종교적 및 민족적 가치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충돌이 전쟁을 야기 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가치-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을 해체시키고, 특수 민족적 가치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계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치가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 초월적 가치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프랑스혁명이후에 인류사회에서 검증된 자유라는 가치가 유일한 가치로 세계운영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세계장악입니다. 이러한 미국 리더쉽의 논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초월해서 미국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요 세계 비전입니다.

우리는 왜 미국국민들의 대다수,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번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슬람세력은 저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슬림 엘리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1991년 중동걸프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미군기지를 구축하고 이슬람세계 경영을 시작하자, 청년 무슬림들이 무력저항을 격화시켰습니다. 급기야 911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슬림 전사들의 무력 투쟁은 서구물질문명에 대한 이슬람 종교(정신) 문명의 대결구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라는 가치가 세계 유일의 가치가 되어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물질주의)의 세계장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대답해야합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이라크 국민들이 독재자 사담후세인을 대적하며 미군을 환영하리라 생각했습니다. 1991년처럼 수백만명의 난민이 쏟아져 나오리라 생각하고 요르단 등에 난민캠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간 소수 부유층 이외에 전쟁난민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르단에 장기 거주하던 이라크인들 수천명이 이라크를 지키기 위해 바그다드로 귀향했습니다.

중동 이슬람국가들 가운데 반미, 반기독교 감정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일부 반체제인사들이 주도하는 반 후세인 봉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이라크와 중동 전체 무슬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교회의 세계선교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백인 형제들의 경영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비 서구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세계 환경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와 비 서구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구도에서 오랫동안 고통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때에 친서구적이며 아시아에 속해있는 우리 한국의 peace maker역할이 중요합니다.

④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